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 절실하다

up

유 한 진 우성사료양계PM/축산기술사



한미 FTA협상타결로 양돈이나 축우분야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채란분야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 축종에 비해 유통상 문제와 저장기간의 짧음으로 인해 양계 분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주요 곡물가격의 인상으로 사료비가 인상되고 사육수수가 증가하면서 과잉생산된 계란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는 시기에 양계농가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농장을 경영하면서 경기의 호·불황에 관계없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지만 특히 이익이 감소하는 지난가 시기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점검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거나 손실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질병예방

지난가 시대에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농장의 운영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 수익감소는 물론 자금압박 등으로 사료연체가 발생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인상된 사료가격의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비 증가로 인해 손실이 증폭될 것이다. 약품비, 병아리 구입비용, 중추구입비 등의 연체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정상적인 농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불항일수록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신발교환, 의복갱의, 농장주변 및 계사입구의 청소·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킨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하였던 지난 2003년 12월~2004년 3월 사이의 방역활동을 상기하고, 그 수준으

로 유지한다면 국내 질병발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사료비 절감방안

계란의 생산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이익을 늘리는 중요한 항목이며, 계란의 생산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 현금구매

외상구입으로 비싸게 공급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본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여금이나 여신을 사용하는 농가라면 현금으로 사료를 구매하는 것이 사료 구입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

2) 적절한 영양소 공급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영양소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면 제거한다. 일부 사양가는 높은 CP 선호하여, 노계에도 높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으나 닭의 주령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영양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CP를 따지기 보다는 실제 섭취 이용하는 영양소와 주령별 영양수준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높은 영양수준을 급여하여 산란율이 1~2%만 높아도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양가가 많으나, 자칫 생산한 계란이 늘면 늘수록 손해가 더욱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령과 생산성에 알맞은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영양수준이 높은 사료를 산란후



기까지 급여하게 되면 난중이 크게되며, 파란율과 탈항 발생율도 높은 편이다. 난가가 낮은 시기에는 특란과 대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수준을 낮추어 난중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경제요인이다. 시산 초기부터 낮은 스펙으로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산란 기간중 생산성 변화 등의 이유로 사료교체가 두려워 한가지 사료를 고집하는 농장의 경우 산란율 증가와 난중증가 속도는 다소 늦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성적(평균 산란율, 파란개선, 사료비 대비 생산성 등)을 고려한다면 영양스펙이 낮은 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전문가와 상의한다.

그 어느때 보다 투입비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아야 하며, 난중과 산란율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란다.

3) 사료낭비의 요인 제거

가. 무제한 급이 자제

생산성과 주령, 외부 환경온도를 감안하여 필요한 사료량 만큼 급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제한 자유급식을 하는 농장이라면 경영이익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첫째, 사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둘째로는 난중증가로 인한 파란이 증가하여 농장의 이익을 감소시키게

된다. 셋째로는 지나친 영양소 공급은 산란계의 경제적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 지나치게 살이 찰 사람의 수명이 짧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닭을 과비시키는 농장이 의외로 많은 실정이다. 무제한 급여하는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기온이 증가하는 시기에 지방간 발생으로 폐사계가 증가하여 농장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영양수준을 공급하느라 사료비를 비싸게 지불 하고도, 폐사로 인해 손해를 겪는 농장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채란업계의 현황이다.

나. 환경온도

계사 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겨울철에 환기를 무시하고 온도만 높게 유지한다면 사료비 절감으로 얻는 이익보다,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최소 환기량을 유지하면서 온도를 높게 유지해야 하며 세심한 주의와 시설이 따라주어야 한다.

나. 급이통 비우기 및 소량급여

1일 1회 이상 급이통을 완전히 비우도록 하여 알곡만 섭취하지 않고 가루사료까지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여 영양적 편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한다. 또한 급이통에 많은 사료가 있게되면 섭취시 흠어지는 허실량이 증가하므로 소량씩 자주 급여하여 급이통에 사료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다. 육성기 체중조절

‘중추는 표준체중 보다 크게 키우는 것이 좋

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세계적인 육종회사의 전문가를 일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사양시험을 통해 만들어 놓은 표준체중을 무시하기 보다는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육성기체중을 과도하게 키우면 산란초기 성적은 좋아 보일지 모르나, 전 산란기간 동안 난중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섭취량도 높아 수당 사료비 지출이 많게 된다. 요즘처럼 특란과 대란의 가격차이가 적을 경우 육성계 체중을 과비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 조기 점등자극 고려

산란자극 점등을 체중 기준으로 1주정도 앞당겨 실시하여 초산을 앞당긴다. 일평생 난중이상 대적으로 적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산란율에서는 난중을 작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난중을 너무 크지 않게 유지하면 난각색과 난각강도를 보다 오래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난중간 가격차이가 적거나, 군납/유통 등 대란을 많이 생산해야하는 농장이라면 산란자극 점등을 앞당겨 시산을 빠르게하는 것과 주령별로 알맞은 영양수준을 공급하여 난중이 커지는 것을 산란초기부터 관리하여야 한다. 한번 커진 난중을 줄이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산란 후기에도 난중이 너무 커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농장의 경우 주령별로 단계별 사료를 적용할 것을 권한다.

3. 첨가제 사용의 신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첨가제는 투입비용

표1. 난각강화 방법

주요항목	실시요령 및 개선사항
칼슘 공급 양	공급하는 칼슘의 양을 늘려준다. 별도로 첨가하는 것도 좋으나 첨가비율을 높은 산란후기나 말기 사료를 급이 하는 것이 좋다.
칼슘의 입자도	칼슘공급원의 80% 이상은 2~5mm 정도의 거친 입자를 사용하며, 석회석이나 패각분을 사용한다. 역시 농장보다는 공장에서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농장에서 추가할 경우 오후에만 보충하여도 효과가 충분하다. 굳이 패각분이 아닌 석회석 이어도 좋다.
마지막 사료 급이 시간	야간에 주로 난각이 형성되므로, 가능한 마지막 사료를 늦게 공급하여 늦게까지 장으로부터 칼슘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 주간에 충분한 사료를 섭취하면 소등 전에는 잘 먹지 않으므로 하루 필요량을 모두 급이 하지 말고 아꼈다가, 소등 1시간 전에 급이 한다.
심야 점등	24:00~02:00 사이에 점등을 하여 사료를 급이하면 야간에도 장내에 사료가 있어서 보다 많은 칼슘을 이용할 수 있다. 야간에 사료차를 운행할 수가 없다면 소등 30분전에 마지막 사료를 주고, 야간에는 타이머에 의해 불만 밝혀준다. 주령이 높은 계군은 주간에 먹을 사료를 아껴두었다가 급이 하여야 난각 개선의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혹서기는 추가급이로 섭취량을 늘려주어야 한다.
영양소 제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낮춘 단계별 사료로 교체해 주거나, 섭취량을 수당 2~3g 제한해 준다. 급이량을 제한하면 균일도가 나빠진다고 하나, 자유채식으로 과비·지나친 난중·파란증가·지방간 등의 폐단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타민 급여	비타민 D3를 급여하면 난각개선의 효과가 있다. 혹서기에는 비타민C를 급여하여 섭취량을 늘려주도록 한다.

대비 회수비용을 생각한 연후에 투여한다. 건강 한사람이 1년 12달 늘상 보약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난가가 좋을 때는 일부 비용을 투자 하더라도 생산성이 조금만 좋아져도 투자비용의 몇 곱절을 얻을 수 있었으나 저 난가일 때에는 투입비용에 비해 비록 생산성이 다소 좋아져도 얻는 것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첨가제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건강이 양호한 젊은 주령이거나, 닭의 생리적 상태를 좋게 유지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첨가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4. 파란감소를 위한 노력

난각개선 및 파란을 감소에 더욱 정진한다. 난가가 좋을 때는 파란도 높은 가격에 수매하지만

난가가 나쁠 때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농장의 수익감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난각강화를 위한 방법은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표 1은 농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난각질 개선의 방법을 요약한 것이며 농장별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한다면 난각질 개선의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특히 사육중인 계군 중 산란말기에 도달하여 파란이 많거나, 초산일령이 늦었던 계군이 45~50주령에 도달한 계군에 실시하기를 권한다. 난각질은 떨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하며, 한번 난각질이 떨어지면 회복하기에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산란계에서 충분 급이는 이미 옛날이야기가 된지 오래 되었다. 동물복지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필요한 최소의 투입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성을 획득하는 것이 채란농가의 최대 목표일 것이다.

5. 생산성 높은 계란유지

계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손익분기점을 넘는 산란율은 높아지게 된다. 계란값이 높은 시기에는 산란율 60%의 계란도 수익이 되었으나, 이제는 80%가 넘어야 수익이 날 정도이다. 산란율이 낮은 닭을 그대로 끌고 간다면 손해만 누적될 뿐이다.

1) 신계로 교체

목돈이 많이 들지만 새로운 닭으로 교체하여 농장평균 산란율을 높여야 수익을 증가시킬수 있다. 불황일수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를 망설이면 앉아서 망하는 수가 있다.

2) 환우를 통한 산란율 증가

질병 등의 이유로 80% 이하의 산란율을 기록하는 닭은 주령에 관계없이 신계로 교체할 형편이 아니라면 과감히 환우를 한다. 환우를 통해 산란율 상승은 물론 계란품질 향상을 통해 좋은 계란을 생산해야만 상인들로부터 좋은 난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환우를 한 이후 난중관리로 좋은 계란품질 유지에 집중한다.

6. 계란 거래처 개발 검토

주변 음식점이나 김밥 집 등 소매 거래처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에 직접 판매하거나 부녀회를 통한 판매, 아파트 일일 장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유통마진을 흡수한다면 저난가 시대의 손실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황기에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

이든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7. 농장 운영비용 절감

돌이켜 보면 2004년부터 경기가 좋아지고 수익이 늘면서 가정에서의 생활비는 물론 농장의 비품구입, 인건비등에 있어서 지출이 많이 늘고 농장주의 노동력 분담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물자를 풍족히 쓰는 경향이 있다.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돌이켜 보며, 저난가 시대를 맞아 농장운영에 있어서 긴축재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8. 투자비용 축소

증설, 신규투자 등을 자제 할 것을 권고드린다. 다만 인건비등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이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장기투자는 오히려 늘린다. 불황기에 투자하고 호황기에 자금을 비축하라는 말이 있으나 아직은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기 직전에 과감한 투자를 위해 힘을 비축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만이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과 저난가 시대에 경영이익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임을 인지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서두에서 밝혔듯이 질병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가장 큰 이익감소 요인임을 재차 강조한다. 부단한 노력으로 불경기 및 한미 FTA를 슬기롭게 넘겨, 좋은 난가를 기록하는 시기가 왔을 때 최대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농장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양계**